

전주한옥마을의 이력서

The chronicle of Han-ok town, Chunju



최상철 | Chol, Sang-cheol, KIRA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전주한옥마을의 공간구조

근대화의 여명이 동티 오르기 시작하던 19세기 말, 전주에서도 성(城) 안팎의 온도차는 상당하였다. 당시 전주부성(全州府城) 자체가 이른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경계로 작용한 탓이다. 그래서 근교상권을 막 장악해 나가던 중소상인들이나 호남평야 너른 들에서 쌀농사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농(富農)과 대지주들조차 대부분 남문(南門) 밖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 을사조약체결 이후 떼거리로 몰려든 일본인들까지 처음에는 서문(西門) 밖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그 유서 깊은 전주성곽이 송두리째 철거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성곽이 버티고 서있던 자리에는 낯선 도로가 하나둘 들어서고, 낡은 건축물이 과감히 교체되면서 다들 성내(城內)로 다급히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이미 조성되어 있던 대지와 건축물, 담장과 골목길 등 내부가구(內部街區)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당시의 원형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전주한옥마을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태동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어쨌든 전주한옥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생활에 적합하도록 골목길을 따라 한옥들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군락을 이루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시끌벅적하니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차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골목길로 접어들 때마다 주민들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고, 또 잔뜩 부풀어 오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어느 집이라도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한때 소원했던 옛날 동무와 다시 만나는 것 같다. 그 때문일까? 전주한옥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이미 사라진 우리 고향땅, 우리 고향마을에 도착한 것 같은 착각에 그만 빠져들고 만다.

한옥마을 보존과 주민들의 갈등

전주한옥마을도 처음 자리를 잡을 때는, 한바탕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1999년, 전주한옥마을이 ‘전통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고 그 기본사업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주민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전주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북대학교 채병선 교수는 한동안 주민들의 시비와 협박에 시달리느라,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실토했 정도다.

땀은 그럴 만도 했다. 당시 고층아파트를 찾아 다들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곳 주민들은 더욱 허탈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발표된 구도심(舊都心) 활성화대책이라는 것이 다시 또 한옥마을 재생이라니, 주민들은 격분했다. 지금까지의 인내와 희생을 보상하라며 너도나도 들고 일어선 것이다.

사실 전주한옥마을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약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전주시에서 풍남동과 교동 등 지금의 한옥마을 일대를 이른바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하면 서부터였는데,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나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그저 한옥을 보존하겠다는 일념아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로만 일관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개정된 건축조례에서 다시 이 지역을 ‘제4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하며 일부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 불편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집단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게다가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한옥보존을 포기했다는 비보까지 속속 날아들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지 1997년, 그동안 이 일대의 한옥군(韓屋群)을 근근이 보존 관리해오던 것을

필자는 전북대학교 건축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전주에서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설계작품으로는 「애일당」, 「주남헌」, 「아중재」, 「마중헌」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 건축」,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 등이 있다.

이제 우리 전주한옥마을은 또 한 차례 큰 변화의 용트림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더 나갈 것이냐,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또 순수혈통을 보존할 것이냐,
시대변화에 순응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항복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지금 전주한옥마을에 드문드문 남아있는 불쌍사나운 몰골은 바로 그때의 흔적들이다. 지금이야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 양옥의 출현을 질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쩌면 그게 최선의 방어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시대상황을 모르고서는 도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고 하는가 보다. 사실 그게 모두 다 우리네 삶의 흔적이자, 도시진화의 한 과정인 것을 어쩌랴?

한옥마을 속의 다른 풍경

전주한옥마을에는 정말 한옥만 있을까? 아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혹 2층짜리 벽돌집이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도 섞여있고, 또 더러는 일본집도 군데군데 눈에 띈다.

한옥이라고 하면 다들 조건반사적으로 아주 저 먼 옛날, 아니 적어도 조선시대 말쯤의 어느 건축물이려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주한옥마을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국운이 급격하게 기울어 가던 20세기 초반, 거의 모든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전주부(全州府) 인근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성벽마저 강제로 철거되게 되자, 성내의 도시구조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된다.

다가동이나 고사동, 중앙동 등의 시내 곳곳에 일본식 건물이 버젓이 등장하게 되고, 다소곳하던 한옥도 이상야릇한 사족(蛇足)을 달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전주한옥마을의 중심도로인 은행로 실개천을 따라 걷다보면, 풍남동 일부지역에는 일본 적산가옥(敵産家屋)이 그동안의 구태를 훨훨 털고 그럴듯한 카페나 가게로 거듭나 있는 풍경을 목도하게 된다.

그래서 전주한옥마을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한옥만 보지 말고, 일본집도 찾아보고, 또 벽돌집이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앞에서 사진 한두 장 찍어두는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 한다.

한옥마을의 변화와 미래

지금 각 지역마다 한옥열풍이 불고 있긴 하지만, 정작 그 진원지와 방향은 다소 애매모호하다. 게다가 고조선시대 어느 한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이른바 초기 한옥이, 중국문물을 대거 걸머지고 들어온 낙랑(樂浪)의 수혈을 받아 좀 더 발전의 보폭을 빨리 했다가, 그 후 약 천여 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동안 그저 약간의 디테일에서만 변화를 보였을 뿐 당대의 주거공간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던, 바로 그 한옥의 정형이 어느 새부턴가 동서양의 문물이 혼재된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주 한옥마을

이제 우리 전주한옥마을은 또 한 차례 큰 변화의 용트림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더 나갈 것이냐,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또 순수혈통을 보존할 것이냐, 시대변화에 순응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여기저기에서 공청회 자리도 마련되고, 때로는 이해관계에 얽힌 주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수긍하고 만족하는 대안은 쉽사리 찾아낼 수 없을 것 같다.

하긴, 순수한 주거기능을 더 보장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고, 상업시설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어볼만 하다. 또 행정 편의주의를 질타하는 고함은 물론, 아예 주말에는 차량을 전면통제하자는 주장에도 박수를 보낸다. 그게 다 우리 삶을 담아내는 주거공간이 변화 발전해나가는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